

# “서로 다른 영화 동시 개봉 솔직히 부담이죠”

### ‘미스터 주’ ‘남산의 부장들’ 양 극단의 캐릭터 연기... 배우 이성민

배우 이성민(52)이 결이 완전히 다른 두 영화로 동시에 설 연휴 관객을 찾는다. ‘미스터 주’에서는 동물과 말이 통하는 정보국 요원으로 코믹 연기를 펼치다가 ‘남산의 부장들’에서는 실존 인물인 ‘박룡’으로 분해 묵직한 존재감을 숨기지 않는다.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만난 이성민은 “너무 다른 캐릭터를 동시에 선보이는 데 대해 부담이 많다”고 털어놓으며 웃었다.

**‘미스터 주’**  
동물과 말이 통하는  
정보국 요원 코믹 연기

**‘남산의 부장들’**  
실존 인물 ‘박룡’ 분장  
묵직한 존재감 드러내

“영화 두 편이 동시에 개봉한다고 했을 때 많이 당황했죠. 그래도 ‘미스터 주’와 ‘남산의 부장들’의 관객 타깃이 다르니까요. ‘미스터 주’는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라고 강조한 그는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신기하고 귀여운 작업일 것 같았다. 따뜻하기도 했다”고 돌아봤다.

“알리와의 연기도 변수가 많았죠. 알리가 적당한 시점에 저를 바꿔야 하는데 안 바꾸면 그 공간을 매워야 했고요. 알리는 이번이 첫 연기 도전인데도 훈련이 잘 돼 있었고 용맹했어요. 집중하고 있을 때면 어지간해서는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아요.”

“똥 밟은 장면은 볼 때 ‘아, 이견 아이들 영화’ 싶었죠. 아이들은 똥이라는 말만 나와도 웃잖아요. 가족영화로서 저는 흐뭇하게 봤어요. 다만 코미디 영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동물을 싫어하다가 알리를 통해 서서히 마음을 열어가게 하는 주태주처럼 이성민도 영화를 통해 동물을 더 좋아하게 됐다고 한다.

“영화 두 편이 동시에 개봉한다고 했을 때 많이 당황했죠. 그래도 ‘미스터 주’와 ‘남산의 부장들’의 관객 타깃이 다르니까요. ‘미스터 주’는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라고 강조한 그는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신기하고 귀여운 작업일 것 같았다. 따뜻하기도 했다”고 돌아봤다.

“처음에 알리를 만났을 때는 짐 한번 문을 때마다 손 닦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접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도 없게 됐어요. 주태주처럼 결벽증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알리에게 마음을 열어가게 과정이 저와 비슷하기도 했고요. (영화에 주태주의 부하로 출연한) 배정남 집에 개가 있어서 잘 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서 소파에 개랑 같이 앉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 배우의 눈을 보고하는 연기가 아니라서 기가 빠리는 기본이 들기도 했어요. 앞으로 영화 기술이 좋아질수록 거부할 수 없는 배우의 수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인 점이라면, 한국 영화 기술이 이 정도까지 왔구나 싶다는 점이었어요. ‘미스터 주’와 비슷한 장르의 영화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해요.”

“남산의 부장들’에서는 미스터 주에서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엄청난 싱크로율을 보여준다. 이는 분장의 힘을 빌렸다고 이성민은 전했다.

“똥 밟은 장면은 볼 때 ‘아, 이견 아이들 영화’ 싶었죠. 아이들은 똥이라는 말만 나와도 웃잖아요. 가족영화로서 저는 흐뭇하게 봤어요. 다만 코미디 영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실존 인물을 흡사하게 모사하는 연기는 처음 해봤어요. 워낙 캐릭터가 우리 머릿속에 각인한 실존 인물이라, 해보고



싶은 충동이 생겼죠. 드라마 같은 데서 박 전 대통령을 연기한 배우들이 거의 비슷한 분들이 하셨는데, 저는 싱크로율이 안 맞더라고요. 고민하다가 분장을 보자고 했죠. 이에는 보정기를 꺼서 발음이 힘들었어요.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게 하고, 의상도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의) 옷을 당시에 만든 분께 가서 맞춰줬어요.”

단순히 분장만으로 ‘박룡’ 캐릭터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다큐멘터리 등을 많이 찾아보고 그분의 제스처나 걸음걸이와 비슷하게 하려고 했죠. 말도 비슷하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진 안 됐던 것 같고, 살도 더 뾰

면 좋았을 텐데 살도 뾰 뾰. (웃음) 개인적으로 걸음걸이랑 뒷모습이 마음에 들어요. 제가 봐도 비슷했거든요.”

그러면서도 “1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가진 피로감에 집중했다”며 “후반으로 갈수록 피곤해져 있고 그로 인해 흐려지는 판단력을 표현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사건을 다룬 정치 드라마지만, 정치색이 빠진 영화에 대해서는 “장기 집권하는 최고 권력자를 둔 이인자들 간의 사랑싸움 같았다”며 “인물 자체에 집중했다면 정치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기생충’ 미국영화배우조합 최고영예 작품상



봉준호 감독(왼쪽 세 번째)과 배우 송강호(왼쪽부터), 박소담, 이정은, 최우식, 이선균이 19일 제26회 미국영화배우조합 어워즈 시상식에서 ‘기생충’으로 작품상인 ‘아웃스탠딩 퍼포먼스 바이 캐스트’ 부문을 수상한 뒤 포즈를 취했다. /연합뉴스

‘기생충’이 미국영화배우조합(SAG·스크린 액터스 길드)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이자 실질적인 작품상에 해당하는 ‘아웃스탠딩 퍼포먼스 바이 캐스트(양상블)인 모션픽처’ 부문에 수상했다.

우 전체가 수상 대상자이다. ‘기생충’의 기택 역 송강호, 연교 역 조여정, 기정 역 박소담 등이 무대에 올라 공동 수상했다.

미국영화배우조합은 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수라인 오토리움에서 진행한 시상식에서 ‘아웃스탠딩 퍼포먼스 바이 캐스트’인 모션픽처 부문 후보

대표로 수상 소감을 전한 송강호는 “오늘 존경하는 배우들 앞에서 큰상을 받아서 영광스럽고 이 아름다운 기억을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미국배우조합은 수상작 선정에서 오스카를 주관하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KAS)와 거의 비슷한 취향을 보이는 ‘싱크로율’이 높았다는 점에서 ‘기생충’의 SAG 작품상 수상은 오스카 수상 가능성을 그만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배우조합은 수상작 선정에서 오스카를 주관하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KAS)와 거의 비슷한 취향을 보이는 ‘싱크로율’이 높았다는 점에서 ‘기생충’의 SAG 작품상 수상은 오스카 수상 가능성을 그만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부문은 영화에 출연한 주연·조연 배

이 부문은 영화에 출연한 주연·조연 배

# ‘밥블레스유’ 시즌 2, 박나래 합류한다

### 최화정과 이영자는 하차

‘요즘 대세’ 박나래가 ‘밥블레스유’ 시즌2에서 최화정-이영자 자리를 대신한다.

한 고민을 들어주고 음식으로 위로해주는 ‘푸드 테라피’ 예능이다.

20일 ‘밥블레스유’ 측에 따르면 이번 시즌에선 기존 멤버 송은이, 김숙, 장도연에 더해 박나래가 새롭게 합류하고, 이전 고정 멤버 최화정과 이영자는 하차한다.

‘밥블레스유2’를 기획한 ‘컨텐츠랩 비브’ 측은 “최화정과 이영자가 시즌2가 제작된다면 기존 프로그램에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새롭게 변화하기를 당부했다”며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겠다”라고 밝혔다.

2018년 6월부터 1년간 방송한 ‘밥블레스유’는 여성 예능인들이 의뢰인의 사소

‘밥블레스유2’ 제작진은 기획을 마무리 짓고 현재 구체적인 방송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

## TV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하차있는 인간들(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특집 살맛 나는 오늘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슬기로운 어린이 생활(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45 육탄방의 문제아들(재)	00 12 MBC 뉴스 20 포구만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특목 보형설계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뉴스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청소년 공감 콘서트 온드림스쿨(재)	20 헬로키즈 동물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TV는 사랑을 싣고(재)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뽀샤매가드S 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2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40 제21대 총선 정당정책연설 <더불어민주당>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10 제21대 총선 정당정책연설 <바른미래당>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날아라 숲돌이 뉴 비기닝(재)	00 5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불타는 청춘(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유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환상의 타이밍 다시보기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날아라 숲돌이 뉴 비기닝	55 특별기획 농업이 미래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50 편애중계	40 낭만닥터 김사부 2
10	00 역사저널 그날 55 더 라이브	00 정해인의 걸어보고서		
11	35 UHD 스포터 40 바다 건너 사랑	10 스탠드 업! 스페셜	10 PD수첩	0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KBS 뉴스 40 KBS 특별기획 2020 한국경제 생존의 조건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100분 토론	20 나이트 라인 50 네모세모(재)

##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10 건축탐구 - 집	17:45 마사와 곰(재)
0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00 EBS 다크프라임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55 미래교육 플러스	19:00 스파이더맨
08:00 당동명 유치원	14:45 몰랑	19:30 생방송 판다다
08:30 애코와 친구들	14:5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20:00 머털도사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10 로보카 폴리(재)	20:30 아웅명명 귀여워워(재)
09:00 엄마까투리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30 원더볼즈	15:55 엄마 까투리(재)	<소근소근 이베리아 -아스투리아스, 골짜기에서 생긴 일>
09:40 아웅명명 귀여워워2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1:30 한국기행
10:00 지식의 기쁨	16:25 파파 피그(재)	<겨울엔 울주 2부 배부르다! 안양장>
10:30 한국기행	16:40 당동명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21:50 EBS 다크프라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2:45 건축탐구 - 집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23:35 미래교육 플러스
12:00 EBS 정오뉴스	17:30 애코와 친구들(재)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1일(음 12월 27일 癸亥)

<p>36년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48년생 많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느니라. 60년생 꼼꼼히 기록하고 정리해둬야만 후사를 도모할 수 있다. 72년생 기존 상황을 재편성할 만한 획기적인 일이 벌어진다. 84년생 요긴한 것이니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되느니라. 96년생 무리한다면 상황을 악화시키기에 충분하다. 행운의 숫자 : 98, 91</p>	<p>42년생 객관적으로 돌아켜 보아야 할 때다. 54년생 점점 줄어들어서 상당히 부족하니 속히 보완토록 하자. 66년생 대동소이다. 78년생 공동으로 행하는 것도 괜찮다. 90년생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 02년생 벌어진 틈을 매꾸지 않으면 이탈 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64, 85</p>
<p>37년생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겠다. 49년생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61년생 가장 가까운 이가 제일 견고한 제방이 된다. 73년생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85년생 심년 목은 체중이 내려가는 듯할 것이다. 97년생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할 시기이므로 주의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행운의 숫자 : 84, 88</p>	<p>31년생 이면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하다. 43년생 파종은 힘들더라도 결실의 기쁨은 클 것이다. 55년생 때가 되면 가리지 않으면 크게 남매를 볼 수도 있다. 67년생 의미가 깊은 날이다. 79년생 각개 격파를 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91년생 중심이 되는 곳을 주목하자. 행운의 숫자 : 94, 95</p>
<p>38년생 완벽하게 대비 했을 때는 피해갈 수도 있다. 50년생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가려서 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62년생 지금은 때가 아니니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 74년생 강령한 기운이 감돌면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리라. 86년생 가장 현실적이고 명료한 것을 선택하라. 98년생 억지로라도 실행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8, 66</p>	<p>32년생 열정을 쏟은 가운데 결실이 보이리라. 44년생 유독 빼어난 것이 보이니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56년생 생각하고 있는 바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알라. 68년생 걱정할 바가 아니라 앞만 보고 나가도 된다. 80년생 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리라. 92년생 쉽게 속을 수도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라. 행운의 숫자 : 83, 49</p>
<p>39년생 특별한 의미가 있다. 51년생 궁극적으로 기반을 공고히 하는 셈이 된다. 63년생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나은 결과를 낳게 한다. 75년생 먼저 논의되어야만 비난을 받지 않는 법이다. 87년생 가닥을 잡고 보면 의외로 쉬울 것이다. 99년생 대체로 양호한 형태를 띠겠지만 애매한 부분도 있다. 행운의 숫자 : 82, 02</p>	<p>33년생 강하게 어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놓여 있다. 45년생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7년생 조절의 시기를 놓치면 무리가 따를 것이니라. 69년생 정성을 다 한다면 길사에 이른다. 81년생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니라. 93년생 대리 만족을 할 운세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03, 30</p>
<p>40년생 별도로 설정해 두는 것이 유리 하리라. 52년생 여태까지 추구하여 왔던 바에 탄력이 붙게 되는 날이다. 64년생 밤심한다던 낙오할 수밖에 없느니라. 76년생 치밀하게 대비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88년생 힘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00년생 현실적인 접근을 한다면 상당한 진척을 보이는 기세이다. 행운의 숫자 : 18, 62</p>	<p>34년생 아울러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46년생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이다. 58년생 입장의 차이가 클 것이다. 70년생 순탄하지 않다면 내면에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한다. 82년생 간접적인 방법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94년생 지금은 불리하니 후일을 기약하는 편이 낫다. 행운의 숫자 : 35, 76</p>
<p>41년생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대응할 수 있다. 53년생 취약한 곳은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65년생 원동력이 될 만한 여건들이 조성되는 기운이다. 77년생 고민만 하지 말고 말로 해야 알아듣느니라. 89년생 주변인의 그 어떤 참견도 의식할 필요가 없으니 주권을 가져라. 01년생 기미가 보이거든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행운의 숫자 : 73, 75</p>	<p>35년생 거주장소부터 버려도 된다. 47년생 기본적인 것이 튼튼해야 전망이 밝아진다. 59년생 과감해야만 실행의 효과가 증폭 될 것이다. 71년생 결단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악재가 보인다. 83년생 내면에는 부실함이 많다. 95년생 긴요한 일이 있을 것이니 절대로 잊지 말라. 행운의 숫자 : 91, 81</p>